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만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해환(海煥)입니다. 명동 소학교, 은진 중학교, 평양 송실 중학교, 용정(龍井)의 광명 중학교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송실중학교가 신사참배 거부하기 때문에 폐교됐습니다. 그 후에 광명중학교로 편입했습니다. 광명중학교 4학년 당시 간도 연길에서 나온 『가톨릭 소년(少年)』에 「병아리」 등을 발표했습니다.

3년 후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연희전문시절에는 『조선일보』 학생란에 산문 「달을 쓰다」를 발표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교지 『문우(文友)』에 「자화상」 · 「새로운 길」을 발표했습니다.

1942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릿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10월에 도시샤대학 영문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도시샤대학은 윤동주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정지용이 다닌 학교입니다.

1943년 7월 여름 방학 때 귀향하기 전에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2년형을 언도받고 복강(福岡) 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는 소년다운 순결한 의식과 기독교적 참회의 정신을 시의식의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1948년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나왔습니다.

윤동주의 시집은 사후에 출간된 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작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간본 (1948.2.)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간본 (1948.2.)

『새 명동』

『서시(序詩)』

『또 다른 고향』

『별 해는 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